

21-1, 2021년 2월 23일 밴쿠버 김은중선교사 편지

###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눅 3:8)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하늘에 치솟고 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그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가 “ 독사의 자식들이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것이다” 였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강단에 회개하라 꾸짖고 심판을 증거하는 메세지가 상실됐습니다.

교회가 교제 중심의 유람선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함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 같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앞에 그 현장의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 답변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였습니다. 겸허히 그 말씀에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코비드 상황속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세례자 요한처럼 주일성수에 대해 불을 품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군중들이 반응했던 그 고백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들이 요망되는 시대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메신저 요한처럼 설교하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된 불편한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그 말씀에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 주렁 맺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2. 1월 한달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주안에 사랑하는 새사령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의 기둥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로 인해 늘 감사합니다.

그 동안 개인 사정상 선교편지를 올리지 못해 늘 죄송하고 주님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국을 방문하고 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담임목사님과 권사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을 얻고 부족하지만 기도부탁을 요청하는 맘으로 저희 사역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 사역은 대학캠퍼스 유학생과 한인교포 1.5세를 전도하고 말씀공부를 통해 제자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주안에 행복한 개척했습니다.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을 포함한 Multicutual Mission사역입니다.

#### 1) BCIC(Blessed Church In Christ 주안에 행복한 교회주일) 사역

2019년 12월에 교회 청년부 부목사 사역을 사직하고 본격적으로 유학생 사역에 전념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그렇게 2달동안 10여명의 청년들이 모였고 교회를 통해 사역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무렵 10년전에 첫번째 교회에서 사역했던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집사가 되었는데 4가정이 찾아와서 교회를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5개월동안 매달 창립준비 위원회 모임을 하고 교회이름 주안에 행복한 교회(Blessed Church IN Christ)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급작스럽게 한국에 작년 6월말에 귀국했습니다. 그때 암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모였던 멤버들에게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번에 걸친 조사에게 암이 아닌 염증의 판정 나고 한국에서 5개월간 요양하고 11월 28일에 다시 밴쿠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왔을때는 청○년 두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3가지 입니다.

먼저는 이민 교회상황에서 선교단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인식도 그렇고 멤버쉽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두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랜트비만 2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속에서 선교단체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이를 때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이 사역의 계승적 차원입니다. 선교단체로만 남게되면 모든 멤버들이 졸업과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이 단체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 교회로할 때 지속적 멤버가 남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Multicultural Ministry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유학생만을 생각했다가 밴쿠버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현재 매주 주일 11시에 인터넷 ZOOM을 통해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4명, 한국인 4명 전체 7-8명정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가 복음의 말씀으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JOE, ELIZAR, ELIZABETH. 세명의 지체가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 2) EAM(ESF Academy Mission 밴쿠버어학연수 온 학생들) 사역.

밴쿠버 다운타운에는 많은 어학연수 학원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공부하고 이들이 밴쿠버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진학하지 않아도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 학생들을 전도 대상으로 합니다. 8주 코스로 코스웍을 만들어 관광지 방문 프로그램속에 하나님과 예수님 죄인된 인간에 대한 공부도 겸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의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세번째 모임으로 게잡이를 했습니다. 이번주에는 4번째 모임으로 코리안 타운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JOE, ELIZAR, TOSHI, CAREN, KYOZI,SAKI,VELIZA입니다.



## 3) ECM(ESF Campus Mission 밴쿠버 대학 캠퍼스 ) 사역

밴쿠버에 4년제 대학은 세개입니다. SFU, UBC, CAPILANO입니다.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대학은 SFU와 CAPILANO이고 UBC는 1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일을 허락지 않기에 우리의 팸플렛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따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토요일 오후6시에 ZOOM을 통해 마태복음을 공부합니다. 현재 ECM모임에는 김동수, 손혜수, 서예화, 박현수, 김민호,구가희, 그리고 외국인은 2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 4) BIBLE Study 사역

성경공부는 일대일과 그룹으로 공부합니다. 그룹은 토요일 오후 6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공부는 인터넷으로 일대일로 이루어집니다. 일대일을 하는 사람과 과목은 이러합니다. 서예화(로마서 2과), 손혜수(창7장), 김동수(창38장), 김민호(창2장), 이지혜(창6장). 박현수(창36장)와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전에는 주로 맥도널드에서 일대일을 한시간씩 했습니다.



#### 3. 기도제목

- 1) EAM(ESF ACADEMY MISSION) 4차-8차 모임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 지도록
- 2) ECM(ESF CAMPUS MISSION) 전도 모임을 혜수자매와 함께 매주 수요일 마다 SFU와 CAPILANO를 번갈아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몇명이라도 관계성 맺어지고 Capilano 캠퍼스채플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 3) BCIC(BLESSED CHURCH IN CHRIST) 주안에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와 제가 영어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Elizar와 Tosi , Caren이 잘 참석하도록
- 4) 코비드 상황이지만 교회성도와 멤버들이 감염되지 않고 학교 생활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 5) 가족이 주안에서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 6) 한달 사역과 생활비가 매달마다 잘 채워져서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